

共產主義가 韓國文學에 미친 影響

李 根 三

I

反共을 國是로 삼고 成長한 나라에서 共產主義가 藝術에 미친 影響을 논한다는 것은 겨울이 赤道地方에 사는 사람들에게 끼친 影響을 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無意味한 노력일지도 모른다. 과거에 우리 文人들 중에는 筆禍사건으로 反共法에 저촉된 사람들이 더러 있지만 그 누구도 자기의 作品이 共產主義의 影響의 產物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1920年初에서 10餘年間 우리나라에서는 階級文學論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朝鮮프롤레타리아藝術同盟」이 結成되어 프롤레타리아文學이 하나의 運動으로서 藝術界에 적지 않는 影響을 주었다. 이 運動에 대해서는 과거 많은 學者, 評論家들에 의하여 文學史的 側面에서 상당한 研究가 進行되었다. 日帝下에서 그러한 運動이 公開的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現象이었다. 그러나 1935年, 이 同盟이 해체되었다가 1945年 解放直後에 와서야 이 운동과 맥락을 같이하는 운동이 再開되었으나 이것도 당시의 政治·社會的 理由로 해서 組織過程에서 瓦解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여사한 藝術運動은 볼래야 볼 수도 없으며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共產主義的 藝術은 北韓에서나 볼 수 있겠지만 우리와는 거리가 멀며 자료수집의 難點도 있어 北韓의 藝術이라는 별개의 研究課題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이 論文에서 北韓藝術 全般을 다루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나 방대할 것 같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比較的 자료수집이 용이했으며 政黨政治와는 무관한 채 거의 自生的으로 발생한 1920 年度の 한국 프롤레타리아文學運動을 主要內容으로 삼겠으며 이어 解放직후의 文學狀況 그리고 北韓에 있어서의 藝術의 基本形式을 잠시 소개하는 形式을 취하기로 하겠다.

II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며 喪失한 것은 藝術自身이다.”¹⁾

1922년경부터 金基鎮과 더불어 프롤레타리아文學運動을 주도했던 朴英熙는 그가 조직했던 朝鮮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KAPF)을 탈퇴하며 이렇게 한탄했다. KAPF 역시 거듭되는 內紛과 外部로부터의 탄압에 못이겨 1935년 자진 解散을 하고 만다. 朴英熙는 낭만주의, 자연주의 文學을 고집했던 이른바 白潮派 文人들을 공격, 프롤레타리아文學의 기수로 등장하지만 金基鎮과의 異見과 단체내의 極左派의 비판을 받아 고민끝에 동맹을 탈퇴 결국 KAPF 운동은 논쟁만 일삼았을 뿐 예술을 상실한 失敗作이었음을 자인하였다.

그러나 朴英熙의 한탄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당시의 프롤레타리아文學運動은 우리文學史에서는 매우 중요한 현상으로 간주된다. 그 운동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최초의 自生的 운동이었으며 文人들로 하여금 갖지 못하는 大衆에게 注意를 돌리게 했고 論爭을 통해 韓國 批評文學의 기틀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오늘날에도 프롤레타리아文學運動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프롤레타리아文學 發生원인에 대해서는 구구한 意見이 많다. 한국의 프롤레타리아文學運動을 蘇聯革命後 全世界에 파급되기 시작한 階級文學의 한 餘波이며 특히 日本의 社會主義文學의 영향이라고 보는 의견이 支配的이다. 한국 프로文學運動에 가담한 대부분의 젊은 文人들이

1) 朴英熙, 「文藝運動의 方向轉換」 한국문학선집, Vol. 36, 민중서관, 1960, p. 21.

日本서 공부한 留學生出身이라는 사실로 해서 이러한 의견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加藤一夫, 小川未明, 平林初之輔, 中野正剛, 青野季吉 그리고 麻毛久 등의 사회주의 作家나 理論家들이 日本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現地에 있었던 留學生들은 어차피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日本 프롤레타리아文學聯盟(KOPF)은 그들의 기관지인 「프로文化」 2卷 3號에 KOPF 中央委員會決議文을 내 한국의 KAPF를 支援할 것을 다음과 같이 宣言했다.

1. KAPF의 擴大強化를 支援한다.
2. KAPF를 朝鮮프롤레타리아文化聯盟으로 發展시키기 위해 모든 援助를 한다.
3. 各 同盟의 朝鮮에 있는 讀者, 取次所, 組織을 동원 적극적으로 活動한다.
4. 朝鮮의 雜誌에 階級的 論文, 小說 등의 材料를 제공한다.
5. 朝鮮과의 連結을 一層 密接히 한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KAPF의 日本프롤레타리아文學運動과의 연관성은 否認할 수는 없을 것이다. 金基鎮은 당시에 알게된 麻毛久로부터 다음과 같은 충고를 받았다고 회고하고 있다.

“金군, 金군은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문학을 배우는 것이고 앞으로 위대한 작가가 되는 길인줄 아시오? 톨스토이를 러시아의 거울이라고 페닌은 말하지 않았오. 金군은 조선의 거울이 되시오. 그렇게 되려면 고국에 돌아가서 씨를 뿌리시오! 金군이 자기생전 그 씨의 수확을 못할지라도 좋다는 결심을 해야 하오. 투르게네프의 「처녀지」와 같이 조선이라는 「처녀지」에 사회변혁의 씨를 뿌리고 개척할 때란 말이오.”²⁾

金基鎮의 歸國이 麻毛久의 충고때문인지는 몰라도 金基鎮은 日本서 培材同窓인 朴英熙에게 프롤레타리아文學의 불가피성에 대해 많은 私信을 보냈다. 金基鎮은 특히 1921年 小牧近江이 주도 발간한 잡지 「씨뿌리는

2) 金基鎮, 「麻毛씨와의 어느날」 文藝思想, 1972.12, p.37.

사람」(種蒔人)같은 잡지를 한국에서 내고 싶다고 했다. 「씨뿌리는 사람」은 바르뷔스(H. Barbusse)의 클라르테(Clarté)운동에 영향을 받은 小牧이 앞장서 만든 세계주의를 표방하는 문학잡지였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프로文學은 韓民族의 抵抗精神의 產物이라고 보는 측도 있다. 1920년 이후 한국에는 수많은 團體가 결성된다. 朝鮮勞動共濟會(1920), 朝鮮靑年聯合會(1920), 高麗共產黨(1921), 社會主義者同盟(1924), 朝鮮共產黨(1925), 그리고 新幹會(1927)가 결성되기 이전 思想團體數는 靑年團體 1,092, 政治思想團體 338, 勞動團體 182, 衡平團體 130이라는 엄청난 結社현상을 나타냈다.³⁾ 이러한 社會분위기는 자연 藝術界 특히 文學界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편 金俊燁, 金昌順은 당시의 프롤레타리아文學運動은 共產主義運動과 무관할 수 없으며 동시에 左派民族運動의 一環이라고 보아 다음과 같이 말한다.

“朝鮮프롤레타리아藝術同盟은 그 명칭이 말해주듯이 프롤레타리아文藝思潮를 대표하는 단체이었다. 이 團體가 階級文藝運動의 旗手였던 事實은 同時에 共產主義運動과 無關할 수 없었다는 事實과도 通한다. 왜냐하면 所謂 프롤레타리아文藝는 곧 프롤레타리아政治 思想運動의 武器이며 革命的 道具이기 때문이다.

朝鮮프롤레타리아藝術同盟의 結成은 當時의 民族運動狀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社會主義를 內容으로 하는 左派民族運動의 上昇과 事情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左派民族運動의 一部 內的 運動으로 간주하여도 잘못된 없을 것이다.”⁴⁾

東亞日報은 1925년 1월초 數회에 걸쳐 「社會運動과 民族運動」이라는 특집을 마련 韓龍雲, 朱鍾建, 崔南善, 玄相允, 曹奉岩 등의 글을 실었는데 이들 筆者는 한결같이 社會運動과 民族運動은 서로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新幹會」의 結成과 解體過程에서 알 수 있듯이 이 兩運動

3) 金允植, 「韓國文學의 論理」 一志社, 1974. p. 180.

4) 金俊燁, 金昌順, 「韓國共產主義運動史」 第3卷,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1973. p. 164.

의 부합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III

1920년부터 自然主義와 寫實主義文學이 主流를 이뤘던 한국문학에 이른바 「新傾向派」문학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당시 日本서 유행했던 「新興文學」처럼 가난한 者, 압박받는 者의 生活을 묘사한 文學을 말한다. 新傾向派文學이 1925년에 결성된 朝鮮프롤레타리아藝術同盟의 母體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그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階級文學과는 차이가 있다. 趙演鉉은 그 차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첫째, 新傾向派文學은 組織的인 文學運動이 아닌 自然發生的인 문학이다.

둘째, 新傾向派文學은 基本的으로 階級意識에 근거된 것이지만 階級的인 覺醒이나 自覺이 미약하다.

셋째, 新傾向派의 作品은 主로 單純한 貧窮文學이 아니면 素朴한 反抗文學으로서 그 貧窮의 社會的, 階級的인 原因이 無視되어 있었으며 빈궁에 대한 反抗이 革命的인 기초위에 서 있지 않은 自然發生的인 個人的 動機나 感情에 기초를 두고 있다.⁵⁾

만주에서 떠돌이 막노동을 한 作家 崔曙海는 그의 경험을 토대로 많은 作品을 썼는데 특히 그의 「飢餓와 殺戮」은 당시 新傾向派文學의 代表的 作品으로 간주된다. 主人公 「경수」는 가난한 막노동자다. 굶주린 가족을 부양하기도 힘든데 아내는 產後 고통에 시달린다. 돈이 없는 경수는 아내의 치료를 위해 1년동안 醫師집에서 머슴살이를 한다는 契約書를 쓴다. 압박한 生活에 지쳐 그는 發狂한다.

“「아아 부서라, 모두 부서라」

소리를 지르면서 그는 벌떡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식칼이 쥐였다. 그는 으악

5)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 成文閣, 1969, pp. 295~296.

—소리를 치면서 칼을 들어서 내리 찍었다. 아내, 확실히, 어머니 할 것 없이 내리 찍었다. 칼에 찍힌 세 생명은 부르르 떨며 방안에는 피비린내가 탁 퍼졌다.

「모두 죽여라……이놈의 세상을 부시자. 북마전 같은 이놈의 세상을 부시자. 모두 죽여라」

……(中略) 경수의 눈앞에는 아무 꺼릴 것, 아무 주저할 것이 없었다. 그는 허둥지둥 올라가면서 다 닥치는대로 부신다. 상점이 보이면 상점을 짓모으고 사람이 보이면 사람을 찔렀다.……(中略) 경수는 어느새 옷장거리 중국 경찰서 앞에서 파수보는 순사를 꼭 찔러 누이고 안으로 뛰어들어 갔다. 창문을 부신다. 보이는 사람대로 찌른다.

「광광 광광」경찰서 안에서는 총소리가 연방났다. 벽탁같이 울리는 총소리는 쌀쌀한 바람과 함께 쓸쓸한 거리에 처량히 울렸다. 모든 누리는 공포의 침묵에 잠겼다.⁶⁾

金基鎮은 이 作品에 대해 “이것은 대단히 조흔 作品이다. 可히 尊敬할 만한 作品이다. 다만 한개 遺憾되는 것은 背景이 朦朧하여서 印象이 明確하지 못한 것이다. 대개 이와 갓흔 配置와 事保를 그리자면 먼저 그 背景—即 土地와 人物 等—周圍環境을 讀者에게 알린 뒤에 그리지 아니하면 恒常 印象이 鮮明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런 것을 作者는 이 作에 있어서 滿洲에 있는 그의 周圍를 그리지 안었다. 이것이 가장 큰 失手이라 하겠다. 그 外에는 難點이 없다”⁷⁾라고 評했다.

崔曙海의 작품과 金基鎮의 評을 보아 알 수 있듯이 新傾向派文學은 主로 가난을 素材로 했고 이에 對한 誇張된 反抗을 하며 모든 것을 個人行動안에 拘限시켰으며 階級思想 또는 투쟁이 觀念의이며 社會性이 희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新傾向文學은 金基鎮과 朴英熙 등의 주도로 階級文學으로 대치된다. 이 階級文學論은 日本留學生을 비롯 당시 젊은 文人들의 적잖은 호응을 받지만 또한 당시 文壇를 주름잡던 中堅作家의 반발에 부딪힌다. 「階級文學是非論」이라는 특집을 마련한 1925년 2월호 「開闢」誌에서의 다음과 같은 文人들의 의견을 그 例로 들 수 있다.

6) 崔曙海, 「飢餓와 殺戮」 조선문단, 1925.6, p.39.

7) 金基鎮, 「文壇最近의 一傾向」開闢, 1925.7, p.127.

“사람에게는 階級이 있다. 士農工商은 職業의 臣이오 사람自體에 엮혀한 階級을 짓는 要素가 되지는 못한다……階級을 爲해야 싸호느냐 다시 말하면 階級利益만을 爲해야 싸호느냐 全人類의 生存을 爲해야 싸호느냐? 나는 나스사로 이 疑問에 對한 明確한 解答을 엮기 爲해야 方今 호올로 애를 쓰는 中이오. 階級戰보다도 疑問戰에 머리를 얹는 中이다.”⁸⁾

—金 石 松—

“階級空氣며 階級飲料水라는 것이 存在할 可能性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階級文學이라는 것도 存在치 못할것이겠지요.……藝術은 人生을 위하여서도 아니고 藝術自身을 위하여서도 아니오 다만 藝術家自身の 막지 못할 藝術慾 때문의 藝術이외다.”⁹⁾

—金 東 仁—

“그럼으로 「階級文學」이라는 一種의 部門을 만들어노코 그 規模에 드러맞는 作品을 만들려고 하거나 또는 만들라고 注文하는 것은 아니될 일이다. 비록 作者自身이 치열한 階級意識을 가지고 階級戰의 急先鋒으로서 文學의 製作에 從事하더라도 自己의 作品을 階級戰에 利用하라는 方便으로 생각하면 階級解放의 闘士로서는 忠實하다할지 모르나 文學者로서는 失敗요 「제로」다. 그것은 文學의 獨立性을 抹殺하고 作家로서의 自己를 自害하는 結果에 싸지기 때문이다.”¹⁰⁾

—廉 想 涉—

“時期尙早의 感이 있습니다.……그러나 文人으로는 반듯이 뿔(부르조아)이니 프로니를 표방해야 할 것인지 그것은 나로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¹¹⁾

—羅 稻 香—

“나는 階級文學이라는 말에 對하여 그다지 큰 興味를 가지지 아니합니다.……나는 階級을 超越한 藝術의 存在를 믿습니다.”¹²⁾

—李 光 洙—

그러나 朴英熙는 이들의 意見과는 달리 프롤레타리아文學을 옹호하며 그 目的하는 바를 명백히 표명했다.

8) 金石松, 「文學論是非」開闢, 1925. 2, pp. 46~47.

9) *Ibid.*, pp. 48~49.

10) *Ibid.*, p. 53.

11) *Ibid.*, p. 54.

12) *Ibid.*, p. 55.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와가티 資本主義社會에서 오래동안 苦悶하던 朝鮮을 解放하자! 따라서 그 外皮를 뒤집어 쓰고 호느적거리든 文學을 解放하자! 誇大妄想病에 걸린 文士들은 한가지 遊蕩이라는 避病院에 모라냈고 오래동안 偉대한 苦痛에서 짓눌리는 無產의 朝鮮을 解放하며 또한 無產階級的 健全한 文學을 살리기 위해서 建設하자! 사람이 社會를 써나서 살 수 없는 現代生活에는 文學도 生活을 떠나서 價値가 없는 것이 明確하다. 畸形的으로 發達한 部分的生産을 麻醉시키는 文學은 말고 生活의 水平的向上을 爲한 民衆의 文學을 建設할 時가 이르렀다. 이것으로 全朝鮮은 步調를 가타하여야 한다.……그럼으로 그러한 使命이 잇슬진댄 우리는 무엇보다도 團結이 必要하게 된다. 勿論 第一線에 선 사람이 안이라고 하여 文藝의 個性發展을 主張해서 그 團結이 必要가 없다는이가 잇슬는지도 모르나 우리는 所謂 藝術至上主義를 깨트리며 個性的 畸形的發展만을 圖謀하는 것이 아니라 無產階級文學은 그 階級과 한가지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게됨으로써 해서 우리도 또 團結을 必要한다는 것이다. 無產階級文學의 文士는 文學뿐만이 머르고 잇는 것이 아니라 階級그것과 生死를 가타하지 않으면 안될 第三線上에서 잇는 戰士인 것을 니쳐서는 안된다.”¹³⁾

朴英熙는 이처럼 文學을 통해 資本主義社會下的 朝鮮, 無產의 朝鮮을 解放하자고 주장하며 階級文學의 理論展開에 급급하던 당시 文人들에게 團結과 行動을 촉구했으며 無產階級文學 以外的 모든 文學을 배척했다. 朴英熙의 이와 같은 主張은 프롤레타리아文學의 행동강령이라고도 볼 수 있다.

新傾向文學의 바람을 타고 한국에는 朝鮮프롤레타리아藝術家同盟에 앞서 두 개의 團體가 생긴다. 1922년 9월에 생긴 焰群社와 23년에 발족된 파스쿨라(PASKYULA)라는 모임이다. 李赤曉, 李浩, 金紅波, 崔承一, 沈熏, 金永八, 宋影, 朴世永, 金斗洙 등이 모여 만든 焰群社는 「우리는 無產階級解放을 爲하여 文化를 가지고 싸운다」라는 綱領을 내걸고 文學運動보다는 文化전반에 걸쳐 직접 行動을 통해 無產階級的 해방을 성취한다는 과격한 모임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들은 機關誌 「焰群」을 통해 무산계급해방을 爲한 文化運動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끝내 그 실현을 보지 못했다. 파스쿨라는 金基鎮, 朴英熙, 安碩柱, 金石松, 金炯元, 李益相, 金福鎮, 延鶴年 등을 中心으로 해서 탄생된 모임인데 파스쿨라(PASK-

13) 朴英熙, 「新傾向派의 文學과 그 文壇의 地位」 開闢, 1925. 10, pp. 2~5.

YULA)란 이들 모임의 各自 姓의 頭文字을 따서 진 이름이다. 이들은 “藝術을 爲한 예술을 배격하고 人生을 위한 예술을 건설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이 말하는 人生이란 곧 無產階級の 삶을 뜻한다. 그러나 파스쿨라는 焰群과는 달리 文學活動에만 치중할 뿐 社會行動과 거리를 멀리했다. 林和는 두 단체의 차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것은 一言으로 말하면 焰群이 比較的 높은 社會的關心과 좀 낮은 文化的敎養을 가지고 있던 대신 파스쿨라는 社會的關心에 있어 前者에 未及했고, 文化敎養에 있어 앞섰다고 볼 수 있어 後者가 곧장 文學의 大道를 매진한 대신 前者는 그대로 政治生活로 進出했거나 一部는 다른 生活을 거쳐 文學에 돌아 온 때문에 생기는 時間上 또는 現象上의 差異라고 볼 수 있다.”¹⁴⁾

파스쿨라는 1925年 2月 8日 天道敎會館에서 文藝講演會를 열었으며 이를 계기로 파스쿨라와 焰群은 같은 해 7월(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異見이 많다) 朝鮮프롤레타리아藝術同盟을 結成하게 된다. 이것이 세칭 KAPF(Korea Proleta Artista Federatio: 에스페란토語)라고 불리는 단체이다. KAPF는 日本의 全日本無產者藝術同盟(NAPF)보다 1年앞서 結成되었다. 어떤 團體이건간에 그 안에는 強硬派와 온건派가 共存하기 마련이다. KAPF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文學을 통한 無產階級解放을 부르짖던 多數의 KAPF 成員들은 少數의 強硬派에 밀려 직접行動에 나설 것을 宣言하게 된다. KAPF는 1926年에 발간한 그들의 기관지 「文藝運動」을 통해 다음과 같이 宣言한다.

“우리는 無產階級運動에 있어서 資本主義의 歷史的 必然을 正確히 認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無產階級運動의 一部門인 無產階級藝術運動으로서

1. 封建的及 資本主義的觀念의 徹底的排擊
2. 專制的勢力과의 抗爭
3. 意識層 造成運動의 遂行을 期한다.”¹⁵⁾

14) 林和, 「韓國現代文學史」趙演鉉, p. 298.

15) 카프本部報告, 「藝術運動」1926.1, 부록, p. 52.

IV

KAPF는 文學자체보다는 이데올로기에 집착했고 창작행위 자체보다는 行動, 抗爭의 길을 택할 것을 선언하였다. KAPF는 그들이 가동할 수 있는 모든 活字미디어를 통해 無産階級에 對한 운동에 拍車를 가했으며 한편으로는 演劇을 통해 大衆속에 침투하고자 모진 노력을 계속했다. 또 한편으로 KAPF는 그들의 운동에 批判적인 國內文人들의 作品과 評論을 신랄하게 매도했다. 이들의 主攻目標은 李光洙였다. 李光洙는 본래부터 당시 文學을 한다면 중요한 學業을 경시하는 젊은이들을 좋지 않게 생각하여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

“모두 20세 乃至 30세 内外의 靑少年으로 中學程度 學校卒業生 學識밖에 없는 데다 淺薄腐敗한 日帝의 類潑期에 感染되었을 뿐……우리 文士들은 知識의 修養을 輕視하는 듯 學校를 卒業아니한 것이 一種의 流行이 되고……”¹⁶⁾

李光洙는 KAPF의 전투적 행동에 심상이 상한듯 東亞日報에 「中庸과 徹底」라는 글을 실어 그들의 행동을 비판한다.

“……무엇에도 常과 變이 있거니와 文學(모든 藝術)에도 그것이 있다. 밤과 같이, 新鮮한 空氣와 물과 같이, 太陽의 光線과 같이, 賢淑한 아내와 같이, 늘 보나 平凡한 듯 하면서도 늘 보아도 물리지 아니하는 文學이 있고 반짝이는 流星과 같이, 달더단 꿀물과 같이, 妖艷한 娼妓와 같이, 一時는 반짝하여 우리의 感覺을 무섭게 刺戟하나 얼마 아니하여 곧 물리고 마는 文學이 있다. ……詩人이 正當한 感情으로 民心을 引導하면 그 革命은 正當한 理想과 方法을 가진 革命이 되어 正當한 效果를 얻으려니와 그렇지 아니하고는 民心의 病的弱點을 利用하여 憎惡, 鬭爭, 詛呪, 殺戮 등의 劣等感情을 挑發하고 激勵할진대 그것이 革命의 爆發을 速히 하는 힘이 있을지언정 革命의 最後 最高의 目的에 對하여서는 致命的인 惡影響을 주는 것이다. ……只今 우리 朝鮮人은 重病을 앓고 난 사람과도 같다. 그는 肉體의으로도 虛弱하거니와 精神의으로도 虛弱하다. 그에게 強烈한 刺戟劑만 주

16) 金允植, 「韓國近代文藝批評史研究」 一志士, 1984, p. 547.

는 것은 마치 불면증환자에게 強力한 珈琲茶를 자꾸 먹이는 것과 같다.”¹⁷⁾

李光洙의 二回에 걸친 이 글에는 KAPF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內容으로 보아 그의 意圖는 분명하다. 이 글은 KAPF派를 적잖게 자극한 듯 梁明은 「文學의 階級性和 中間派의 沒落」라는 글에서 李光洙의 글에 대해서는 물론 그의 사람됨까지도 매도한다.

“어느 時代 어느 社會를 勿論하고 이와 같은 中間의思想, 中間的意識의 所有者가 없지 않거나와 特別히 經濟的落後 國家인 今日的 朝鮮에는 이러한 份子가 甚히 만다. 朝鮮最初의 文學革命論者, 自由離婚論者요, 己未運動當時 東京留學生代表 兼, 宣言書起草人이요 上海 臨時政府의 議政院議員 兼 獨立新聞 主筆이요, 「民族改造論」의 執筆人이요, 前「朝鮮文壇」主筆, 現 東亞日報 속탁인 春園 李光洙君은 實로 朝鮮에서 이와 같은 中間思想의 가장 有力한 理論的代表者가 될 것이다.”¹⁸⁾

梁明은 李光洙의 글을 반박하기에 앞서 우선 李光洙의 과거 경력을 나열하고 “李光洙君은 朝鮮서 가장 有名한 詩人이요, 道德家요, 宗教家이다……朝鮮三才士의 一로 博學多聞인 李君이 그러타! 하는 以上 틀림은 別로 업을 것이다”¹⁹⁾라고 빈정대기도 했다. 그는 李光洙의 글 內容을 날날히 비판, 매도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忠告를 잊지 않는다.

“春園 李君이여! 君은 將次 어서한 思想을 가지고 어서한 藝術을 創作하려는가? 筆者는 君에게 對하여 現實을 逃避하는 弱者가 되지말고 될 수만 있다면 그와 直面하여 勇敢스럽게 싸우는 鬪士가 되기를 바란다. 알아서 하로라도 急速히 現在의 兩極의 態度를 버리고 兩者中 그의 一을 取하기를 好意的으로 勸告하고 싶다. 그러나 이와 같은 忠告를 듣고 안듣는 것은 勿論 君의 自由일 것이다.”²⁰⁾

朴英熙 역시 李光洙의 作品은 暗黒期에서 黎明期로 나아가는데 必要한 準備作品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그의 作品은) 完全한 人生 生活의 根據를 둔 藝術品이 아니라 暗黒期에

17) 李光洙, 「東亞日報」 1926. 1, p. 2~3.

18) 梁明, 「文學의 階級性和 中間派의 沒落」 開關, 1926. 3, p. 99.

19) *Ibid.*, p. 104.

20) *Ibid.*, p. 109.

서 黎明期로 나아가는데 한 準備品이라고 할 맞게는 업다. 따라서 氏의 獨特한 主義를 發見하기 前에 먼저 氏는 朝鮮黎明期에 準備的作家라고 하고 십다. 그가 그리여 낸 人物은 모다 一定한 理智를 가지지 못하고 一定한 主張을 가지지 못하고 壯年の生活의 戶主가 되기 前에 일어나는 空想的 少年時代가 만다.……朝鮮사람이 職業이 있스면서 노는것은 아니다. 職業을 주지 안이한다. 이것이 現今 우리의 큰 問題거리다. 또한 우리의 藝術도 이에서 發足하지 안으면 안이된다. 秋에 우리는 餓死하고 말 것이다. 朝鮮形便을 모르고 더운 房에서 美衣美食을 씹으면서 朝鮮人만을 無意味하게 責하는가? 불상한 無職 勞動者를 氏는 무슨 特權을 가지고 責하는가? 만일 氏가 一二人을 標準삼고 한 말이면 氏의 狹少한 思索만을 責하려니와 만일 全朝鮮을 標準하고 한 말이면 적어도 朝鮮의 無產者 諸君은 이미 한가지 氏에게 質問하기가 느것도다.”²¹⁾

KAPF의 盟員은 1927年에는 100여명으로 늘어난다. 東京에서 「第三戰線派」로 알려진 당시 留學生 趙重滾, 金斗鎔, 韓植, 洪曉民, 李玆滿도 參與하고 林和가 書記長을 맡아 KAPF의 戰力은 강화되어 白潮派文人들을 압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체내에 심한 알력이 생기기 시작한다. 新參盟員들은 철저하게 이데올로기 一邊倒로 기울어졌으며 그들의 행동요강은 理論鬭爭, 政治鬭爭 그리고 大衆鬭爭이라는 세 가지로 集約되었다.²²⁾ 이와 함께 日本에서 歸國한 林和, 權煥, 金南天, 安漢 등은 KAPF에 對하여 그 불세비키化를 猛烈히 主張, 要求하였다.²³⁾ 이리하여 文學이 階級鬭爭과 革命的 方便으로 탈바꿈을 하는 過程이 시작된다. 이들의 마르크스主義 이데올로기와 그 정착을 爲한 鬭爭에 對해 金華山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그들은 푸로 文藝運動의 分類를 是認치 안는다. 卽 맑스主義 以外的 無產文藝運動의 存在를 是認치 안는다.……勿論 맑스主義主者의 見地로 보면 當然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맑스主義以外的 見地에서 볼새 이것은 너무나 固陋偏狹한 理論이

21) 朴英熙, “文學上으로 본 李光洙”, 「韓國現代文學批評史」資料Ⅱ, 權寧珉篇, 檀大 出版社, 1981, p. 62.

22) 金容稷, “韓國프로文學의 이데올로기 追求過程에 關한 研究”, 「사회과학과 정책 연구」, 제 4권 제 3호, 서울大 사회과학연구소, 1982, p. 142.

23)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前揭, p. 304.

다. 無產文藝運動을 塔스主義에 局限한다는 것은 그네의 暴論이다.”²⁴⁾

外部로부터 이들에 對한 批判이 가해지는데 그치지 않고 金基鎭과 朴英熙 사이에도 罅이 가기 시작한다. 金基鎭은 朴英熙의 作品 「徹夜」와 「地獄巡禮」를 批判하여 “그의 作品은 階級意識, 階級鬭爭의 概念에 對한 抽象의 說明에 始終하고 一言一句가 이것을 說明하기 위해서만 使用했다. 小說이란 한개의 建築이다. 기둥도 없이, 석가래도 없이 붉은 지붕만 입혀 놓은 建築이 있는가”²⁵⁾라는 批判을 가한다. 이데올로기에 급급한 나머지 小說이 갖추어야 할 基本을 망각했다는 金基鎭의 비판은 또한 KAPF의 체계모니를 장악한 少壯派 맹원에 對한 警鐘이기도 했다. 朴英熙는 즉각 프롤레타리아文學이 건축물을 만들기 爲한 노력의 아니며, 프롤레타리아文學은 形式보다 마르크스主義 內容이 더욱 重要하다고 반박한다.²⁶⁾ 이른바 小說 建築論 是非는 批評界의 관심을 끌어 贊反의 意見이 亂舞하게 된다. 批評界를 자극했다는 事實은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한 團體의 리더格이었던 兩大 기둥間의 論爭은 KAPF 로서는 큰 打擊이었을 것이 라는 짐작이 간다. 결국 金基鎭과 朴英熙는 이 論爭을 계기로 第三戰線派, 즉 後期에 KAPF 에 참여했던 少壯派들에게 밀려나는 結果가 된다. 少壯派는 마르크스主義 이데올로기를 爲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보다 行動의이며 戰鬥의인 路線을 취했음은 勿論이다. 그들은 적극적인 無產階級 침투의 手段으로 傘下의 映畫와 演劇分科를 가동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그들은 映畫와 演劇때문에 日警의 檢舉선봉에 휘말려 들어가 1931 년에는 70 여명의 中央委員이 그리고 34 년에는 80 여명이 구속된다. 이리하여 1935 年 5 月 21 日 金南天, 林和, 金八峰(基鎭)은 京畿道 警察部에 解散書를 제출, KAPF 는 10 年 歷史의 幕을 내린다.

24) 金華山, 「階級藝術論의 新展開」 조선문단, 1971.3, p.16.

25) 金基鎭, 「文藝時評」朝鮮之光, 1926.12, p.94.

26) 朴英熙, 「鬭爭期에 있는 文藝批評의 態度」小說評論集, 三千里社, 1930, p.62.

V

KAPF는 불과 10년 동안 밖에 존속치 못했지만 그러나 같은 目的으로 결성된 蘇聯의 PAPP(러시아 프롤레타리아 작가동맹)나 日本의 NAPF(日本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보다는 그 生命이 길었다. 부단한 檢閱과 감시하의 식민지에서 KAPF가 10년을 견디어 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盟員들의 모진 노력은 평가되고 남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日警이 근 10년 동안 그들의 行動을 거의 放置하다싶이 내버려 둔 理由가 무엇인가라는 疑問도 생긴다. KAPF는 地下組織이 아니라 合法的으로 신고·등록된 公式團體였으며 그들의 主張은 公的으로 表現되어 日帝로서는 달갑지 않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日帝는 철저한 단속을 하지 않았다. 日帝는 그들의 正體가 낮낮히 노출될 때까지를 기다려 뿌리채 뽑고자 한지도 모를 일이다.

KAPF는 既存作家, 特히 李光洙를 필두로 한 啓蒙主義, 浪漫主義 또는 自然主義作家들을 신랄히 批判하는 한편 프롤레타리아文學의 인식과 그 定着을 爲해 活潑한 論評과 討論을 펴 왔지만 아쉽게도 그들의 文學觀 또는 政治觀 그리고 革命思想을 내포한 作品을 배출하지 못했다. 主로 日本을 통해 얻은 階級文學理論을 답습, 이를 전파하는 評論作業에는 활발했지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文學作品은 生産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主張은 盟員들 間의 討論과 知識論爭에 그쳤을 뿐, 그들이 說得의 對象으로 생각했던 無產階級과는 無關한 卓上空論으로 끝나고 말았다. 당시 많은 社會團體가 結成되었지만 그러나 프롤레타리아階級の 形成은 요원했으며 특히 당시의 근로자들은 KAPF 盟員들의 評論이나 作品을 消化할만한 知的 成長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었다.

간혹 프롤레타리아文學의 一面을 나타내는 小說이나 戲曲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 文體나 호소력 내지는 說得力이 그들이 異端視한 既存作家의 그

것들과는 比較가 안될 정도로 作品으로서의 落後性을 노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철저한 檢閱下에서 그들의 作品이나 論評은 正常的인 活字 보다는 ○○○, 또는 ×××로 적힌 檢閱票로 얼룩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프롤레타리아文學의 代表作이라는 趙抱石의 「洛東江(1927)」, 「마음을 갈아먹는 사람(1926)」이나 朴英熙의 論評 등을 보아도 겹겹로 삭제된 부분이 正常的인 活字보다 더 많았다는 사실을 보아도 당시의 그러한 檢閱制度下에서는 프롤레타리아文學運動이 힘겨운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부록> 참조)

大衆과의 遊離現象을 克服하기 爲해 金基鎮은 文學의 大衆化를 爲해 많은 試圖을 거듭하지만 KAPF 內 少壯派와 極左派는 이데올로기 第一主義와 그 實踐을 주장하여 金基鎮의 文學大衆化努力도 水泡로 돌아가고 만다. KAPF 後期에 헤게모니를 장악한 少壯派들은 그들과 意見을 달리한 洪陽明, 洪曉民, 金東煥, 安夕影 등을 차례로 除名處分했다. 末年에는 KAPF 는 政治集團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解散의 主要한 原因으로 作用된다. 朴英熙는 KAPF 의 初期의 形態는 藝術家들의 集團이었으나 점차 社會生活에 關心을 갖기 시작했으며,

“이러고 보니 藝術家만이 모이는 것은 狹少함을 느끼었다. 그리하여 門戶를 開放한 結果 너도 나도 하고 모인 結果는 一個의 不滿足한 社會運動團體를 形成한 感이 있으니 地方에서는 各各 支部를 設置하고 本部에서는 藝術的 論議를 떠나서 社會的 스토건을 檢討하며……自己들의 일에 奉仕하는 것이라면 宣傳書라도 좋다 報告書도 좋다는 때까지 이르렀다.……上述한 藝術家의 社會的 實際的進出은 朝鮮의 藝術家들의 누구보다도 現實的 社會的進出의 功勞가 빛나고 있다. 그러나 그 代身 萎縮, 固定된 것은 藝術이었다.”²⁷⁾

고 當時 KAPF 의 實情을 실토했다.

KAPF 運動을 주도한 사람들은 日本에서 공부했거나 체류했던 젊은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중에는 당시 朝鮮共產黨에 加入했던 黨員은 거의 없었다. 젊음의 特徵은 既存體制를 탈피, 항상 새로운 것과 接觸하고자 하는

27) 朴英熙, 「最近文藝理論의 新展開과 그 傾向」 한국문학선집, Vol. 36, 민중서관 1960, p. 23.

本能的衝動을 느낀다. 이들이 프롤레타리아文學運動에 뜻을 둔 것은 당시 殖民地政策下에 있던 젊은作家들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던 일이며, 설사 蘇聯革命後 全世界에 파급된 文學의 傾向이라고 하지만 韓國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運動이 黨이나 어떤 團體의 指向과 命令에 依한 것이 아니라 自生的이었다는 事實은 注目할만한 일이다. KAPF 運動의 創始者라고 볼 수 있는 金基鎮은 6·25 事變中 共產黨에 의해 人民裁判까지 받았다. 비록 KAPF 운동이 와해되었지만 그들이 남긴 論評은 韓國文學史上 최초의 文學의 社會的 批評이었으며 오늘날 批評文學의 기틀을 잡는 契機가 되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않된다.

KAPF는 演劇과 映畫가 갖는 特性을 간주, 그들의 이메올로기를 無產層에 전파하는 手段으로 傘下 演劇部를 最大限으로 가동하고자 하여 수많은 左傾演劇團體를 結成한다. 平壤明日劇場, 京城小型劇場, 太陽劇場, 開城大衆劇場, 京城新建設, 海州演劇劇場等 各處에 수많은 유사극장이 생기지만 新建設 등 한 두개 劇場의 公演이 한 두번 있었을 뿐, 모두 이름만의 劇場이어서 公演의 實을 거두지 못했다. 日帝의 檢閲과 財政上의 問題가 그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金基鎮은 훗날 KAPF 운동을 다음과 같이 回顧했다.

“카프運動은 우리나라 民族運動이 左傾路線으로 旺盛하게 벌어 나가던 時期에 發生했고 成長했기 때문에 이러한 事實과 전혀 無關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카프가 직접 共產黨이나 기타 左翼團體들과 연관성은 없었지만 思想的으로는 同一한 이메올로기線上に 있었다는 사실—筆者註). 그러나 文藝運動은 政治家나 思想家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文學藝術家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自己領域이 있기 마련이다.……카프運動은 우리나라 新文藝運動에 있어서 어떠한 貢獻을 해야 할 것인가가 鬭爭目標였다. 그 點에 있어서 첫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自我發見이었다.……過去에 確固하지 못했던 自然主義方法을 社會主義的 寫實主義로 引導하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별다른 注目할만한 作品은 없었다고 본다.”²⁸⁾

28) 金俊澤, 金昌順, 「韓國共產主義運動史」第3卷, 高大亞研, 1973, pp. 172~173.

Ⅵ

1945년 8월 17일 解放 이틀 뒤에 舊 文人報國會자리에 「文學建設總本部」라는 간판이 걸린다. 어떠한 社會團體나 政黨에 앞서 文人들의 모임이 생겼으며 이 모임은 林和를 中心으로 한 舊 KAPF 盟員들의 주동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音樂建設總本部, 美術建設總本部, 演劇建設總本部, 映畫建設總本部 등이 생겼으며 뒤이어 이 단체들은 「文化建設中央協議會」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 林和가 그 書記長자리에 앉는다. 林和는 무엇보다도 民族文化의 建設을 文化·藝術人들의 當面課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 文化 또는 藝術영역에 있어 일제의 흔적일소, (2) 종래부터 우리 文化的, 藝術的 장애물인 봉건적 잔재 청산, (3) 새로운 건설에 있어 外國文化섭취 및 古典계승을 저해하는 국수주의적 경향 배제를 주장하였다.²⁹⁾ KAPF 時代의 경험을 살려서 그런지 林和가 프롤레타리아文學 대신 民族文學을 강조했다는 事實은 注目할만하다. 그러나 趙演鉉은 林和의 이러한 主張은 모든 文人을 자기 휘하에 묶어 두기 爲한 기만이라고 반박한다.³⁰⁾ 林和의 民族文化建設論에 불만을 품은 과격파들은 프롤레타리아文學同盟, 프롤레타리아美術同盟, 프롤레타리아音樂同盟 등을 結成, 이들을 다시 結合全國프롤레타리아藝術同盟을 조직하여 林和의 文化建設中央協議會와 對立關係에 서게 되지만 南勞黨은 이들 두 團體의 結合을 指令, 결국 두 단체는 全國文學家大會를 거쳐 朝鮮文學家同盟으로 새로이 탄생하게 되며 林和를 中心으로 한 文人들이 主導權을 장악한다. 朝鮮文學家同盟은 주변 左傾文化人들을 포섭, 다시 「文化團體總聯盟」을 조직한다.

이들에 反해 民族 또는 純粹文學을 표방한 文人들은 中央文化協會, 靑

29) 金允植, 「韓國近代文藝批評史研究」 一志社, 1984, pp. 576~577.

30) 趙演鉉, 前掲, p. 597.

年文學家協會, 곧이어 이들의 合同團體인 全國文化團體總聯合會를 結成, 韓國의 藝術文化는 左右로 크게 갈려 銳角의인 對立相을 보이게 된다. 이들간의 論爭도 活發해져 特히 金東里的 「毒爪文學의 本質」과 金東鉉의 「純粹文學의 正體」 등을 中心으로 한 思想論爭은 유명하다. 그러나 南勞黨의 외곽단체가 되고만 左翼團體는 당시의 政治的 狀況에서 그 存在의 命脈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며 被檢, 潛伏, 越北사태에 直面하며 1948년 反共을 國是로 한 政府의 出現후에는 그 勢力이 一掃되고 만다. 그나마 轉向을 通해 執筆하던 解放初期의 左傾文人들도 6·25 動亂을 계기로 越北하거나 拉北되는 운명을 당하게 된다. 越北한 作家들은 文學荒無地에 가까웠던 以北에서 文學團體의 책임자로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林和, 薛貞植을 비롯 많은 作家들은 美帝의 스파이 또는 派黨分子로 몰려 肅清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VII

北韓에서도 憲法에는 文學·藝術活動의 自由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 自由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概念이 아니다. 金日成은,

“反動的인 부르조아 作家·藝術人들은 社會主義의 文學藝術에 대한 黨의 영도가 마치 文學藝術 創作의 自由를 구속하는 듯이 악랄하게 비방 誹謗하고 있으며 思想의 독소에 물젖은 修正主義者들도 또한 文學예술의 自由化를 떠벌이면서 文學예술 사업에 대한 黨의 영도를 거부하려고 책동하고 있다.”³¹⁾

고 말한 바 있다. 黨의 領導 밖에 있는 藝術人들은 自由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다. 金日成은 藝術人들에게 다음과 같은 指示를 했다.

“우리의 文學예술은 절대로 혁명의 이익과 黨의 路線을 떠나서는 안되며 착취 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를 허용해서도 안된다. 오직 黨의 路線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한 혁명적 文學·예술만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

31)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평양: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편), 1975, p. 41.

으며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될 수 있다.”³²⁾

北韓에서는 혁명적 문학예술을 구현하는 方法으로 「社會主義的 寫實主義」를 내세운다. 社會主義的 寫實主義는 물론 北韓의 독창물이 아니라 1932년 10월 26일 막심 고리키(Maxim Gorky)의 집에서 열린 文人들의 모임에서 당시 이즈베스티아(Izvestiia)紙의 편집장인 구론스키(I.M. Gronsky)에 의해 제창된 개념이다.³³⁾ 북한에서 나온 「문학예술사전」에 의하면 社會主義的 寫實主義란,

1. 社會主義的 內容(革命的 階級的인 內容)에 民族的 形式을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創作方法이며
2. 黨性, 階級性, 人民性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說明되어 있다. 金日成도 外國記者와의 會見에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라고 하면 민족적인 형식에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는 것을 말한다는 정의를 주었습니다.……주체적인 민족문화예술은 민족적인 형식에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며 인민대중의 정치문화생활에 훌륭히 이바지하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³⁴⁾

라고 北韓의 예술의 기틀은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임을 강조했다. 그가 말한 민족적인 형식은 후에 主體的 형식으로 바뀌어진다. 黨은 北韓의 藝術文學이 이렇듯 革命性, 黨性, 階級性 또는 民族性 내지는 主體性을 強調하여야 한다고 主張하는 한편 南韓解放의 鬭爭道具로서도 그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1964년 11월 7일 金日成은 北韓의 藝術人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연설을 했다.

“지금 南朝鮮 情勢는 매우 좋습니다. 南朝鮮인베리들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32) 「김일성저작선집」 2권, 평양, 1968, p. 579.

33) *Western Society & Marxism Communism* Vol. 8, (Herder & Herder New York: 1972), p. 1.

34) 「문학예술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 p. 497.

다. 그들은 外勢의 干涉이 없는 自主統一을 主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美國놈들을 반대하여 싸우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美國놈들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南朝鮮人民들이 反美鬭爭 口號를 높이 들고 싸우도록 계속 노력하여야 합니다.

南朝鮮사람들에게 革命鬭爭의 方法을 가르쳐 주며 그들의 革命的 情熱을 북돋아 주며 階級的 각성을 높여 주는 文藝作品을 創作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³⁵⁾

이상과 같은 北韓의 文學藝術觀을 볼때 北韓은 해방직후의 소위 민주기 지건설기, 조국전쟁기, 전쟁복구기,千里馬시기, 사회주의건설기, 그리고 金正日세습기를 거치는 동안 그들의 문학예술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어떠하였으리라는 것은 짐작을 하고도 남음이 있다. 北韓의 文學藝術人들은 主體的인 입장에서 共產主義의 영향을 받아,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처지에 있을 수는 없으며 黨의 領導 또는 命令에 따라 움직이는 存在일 뿐이다.

VIII

1920년 한국에 프롤레타리아文學運動이 일어난 것은 그 원인이 소련革命 이후의 세계적 추세와 一環으로도 파악되기도 하고 가까운 日本의 직접적인 영향, 또는 民族獨立運動의 한 方法으로도 해석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 運動에 참여한 藝術人들은 그 대부분이 공산당원이나 정치단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딜레탕트(dilettante)적인 요소가 많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들에게는 철저한 組織집투, 工作, 전복 등 실제 戰術의 능력이 없었으며 KAPF 末期에 이데올로기實踐을 주장하기는 했으나 그들의 행동은 관념적이었을 뿐이다. 이미 앞서 지적한 여러가지 理由로 해서 KAPF가 해산되고 解放직후 이들 중 많은 文人들이 林和를 중심으로 프롤레타리아文學藝術단체를 조직

35) 金大幸, 「北韓의 詩歌文學」 梨大韓國文化研究院, 1985, p. 27.

하여 共產黨의 외곽단체의 구실을 하지만 여전히 政治一線에는 나서지 못한 채 急變한 政治情勢에 적지 않은 文人들이 越北을 한다. 6·25 사변 전에는 이들 文人들이 北韓에서 禮遇를 받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은 전쟁후 反動, 간첩, 無能의 탈을 뒤집어써 숙청되고 만다. 그러나 KAPF 時代부터 해방직후까지 프롤레타리아文學運動을 표방했던 文人들은 金基鎭이 지적했듯이 文學作品과 演劇公演은 창출하지 못했지만 그 理論소개와 論爭을 통해 文學의 社會性을 강조하는 評論의 기틀을 잡았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될만하다. 越北한 이들이 오늘날 여러가지 理由로 해서 사라졌고, 北韓에서는 이들이 目標로 삼았던 社會主義의 寫實主義藝術이 唯一한 形式으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形式은 黨의 命令일 뿐, 藝術人들이 自由스럽게 취사선택한 產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影響’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⁸⁶⁾

6월호, p. 32).

“이와가티 새로운力을 形成하는……級은……의 主體가 되지안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地主……, 小畧즈와지를……하지안으면 안된다. 이것을 전취함은……力을 그만치……는 것이요 同時に 그만치………利케하는 것이다. 朝………는 그, 小畧즈와지

表現인……表現인……勢力에……階에까지 至하였다.……級이……級에 對하여 全……함을 일으키는 것이나 그제는 발서 그만한 力의 存在를 前提로 하는 것이다.”(韓雪野. 文藝運動의 實踐的 根據. 「조선지광」, 1928. 2. p. 87).

“우리는……對하여 우리藝術을 通하여……의 排判을 날일 수 있는 藝術만이 우리의……의 藝術이며……眞正한 意味의——이러한 藝術에까지……하는……의……과……하는……하는……中에서 藝術……을 組織하며 敎養하여……에까지 昂揚시키려 한다.”(張準錫. “文藝運動의 理論과 實際는 如何히 歸結되었던가.” 「조선지광」, 1928. 2. p. 79).

「이 뽕쌀 서울아! 너는 ○○○ ○○○○ ○○○ 내어던지고 한단 말이나」하며 또한 속으로 부르짖었다. 과연 이 서울은 ○○○○ ○○○○ ○○○○ ○○○○○○다가 ○○○○○○○○○ 아무데나 내어배알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나? 그대들이 ○○○○○○○○○○ ○○○○ ○○○○ ○○○ ○○○ ○○○○○○○○○○○○○○○○○○○○.」

(趙明熙. 「한여름밤」, 1927. 4. 一太英社版. 1985. p. 104).